

광주극장 있어 행복한 관객 10명 영화 간판 속 주인공 된다



올해 80년된 광주극장 간판 주인공이 된 관객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선희·박시은·김윤아·정애화·이지현·최영무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 인생의 동반자”, “마음이 답답할 때면 늘 찾는 곳”, “옛날 할머니 손맛 같은 공간”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또 다른 이들은 미소를 띠며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에게도 꼭 그런 곳”이라는 동의의 표시였다. 전국 유일의 단관 극장 ‘광주극장’은 이들에게 그런 공간이었다.

10대 여고생부터 일흔 다섯 할아버지까지 10명의 관객들이 광주극장 간판의 주인공이 된다. 광주극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손그림 간판을 거는 곳이다. 올해 개관 80년을 맞은 광주극장은 극장을 자주 찾는 관객들을 주인공으로 간판 작업을 진행중이다.

지난 20일, 극장에 모여 사진 촬영을 진행한 6명의 관객은 처음 관객 모델을 제안받았을 때 “영광스럽고, 행복했다”고 입을 모았다.

“오늘 찍은 사진을 모티브로 간판을 그린다. 극장 간판은 상영하는 영화를 홍보하는 공간인데 80년만에 처음으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셈이다. 한 장의 가족 사진처럼 그려 볼까 한다.”

간판을 제작할 극장 미술실 박태규 작가는 흔쾌히 참여해준 관객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광주예고에서 서양화를 전공하는 박시은 양은 중학교 때 선생님과 함께 ‘그랑블루’를 관람하며 광주극장과 인연을 맺었다. 고등학교생이 돼서는 혼자 영화관을 찾고, 티켓도 꼬박꼬박 보관중이다. 가장 감명깊게 본 영화는 ‘마미’다.

광주 토박이인 정애화씨는 학창 시절 ‘퀴비디스’, ‘십계’ 등을 단체 관람했던 기

전국 유일 손그림 간판제작 단관극장 ... 개관 80주년 특별 행사

광주극장과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 온

여고생부터 75세 할아버지까지

관객들을 주인공으로

간판화가 박태규씨가 직접 그려

10월 15일 관객과 함께 내걸어

역이 있다. 광주극장이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변신하고 나서는 ‘열혈 팬’이 됐다. 광주극장에서 상영하는 작품은 1년에 150편 정도. 정 씨는 전 작품을 보려고 애쓰고 지인들에게 열심히 ‘강추’ 카톡을 날린다. 요즘 강추하는 영화는 ‘미라클 벨리에’다.

“광주극장 상영작은 수준이 보장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연가를 내고 영화를 보기도 했는데 요즘엔 체력이 딸린다(웃음) 지난해에는 120편 정도 본 것 같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다.”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박선희 교수는 18년 전 광주에 왔다. 광주극장에서 처음 본 영화는 2004년의 ‘송환’. 당시 관객은 단 네명. 무척 추웠던 기억이 난다.

“태어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은 처음이다. 우리 과에 광주극장 영화를 거의 다 보는 학생이 있었는데 아마 그 친구가 있었다면 나는 탈락하지 않았을까(웃음) 지금 마침 프랑스로 영화 공부하러 떠나

다행이다. 중동쪽 영화에 관심이 많다. 나에게도 이 공간이 힘들 때 오는 곳이기도 하다. 혼자 와서 영화를 보고 나면 조금 치유된다거나 할까. 고통이 가득한 그 쪽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 삶도 돌아보게 되고, 광주극장은 힘들고 괴로울 때 위로가 되는 공간이다. ‘코뿔소의 계절’이 참 좋았다. 1학년 때는 꼭 광주극장에서 영화를 보도록 과제를 내준다.”

일을 접고 ‘전업주부 인턴’ 생활중이라는 최현무 할아버지는 “고등학교 다닐 때 ‘19금 영화’를 몰래 보던 기억이 난다”며 “영화를 보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흥미롭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음악교사인 김윤아씨는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극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1년 관람 편수는 약 80편 정도다.

“극장에서 포스터를 얻어다 음악실을 꾸미는데 아이들이 참 좋아한다. 흥미를 느끼고 광주극장을 찾는 아이들도 많다. 오래 전에 졸업한 제자들을 극장에서 만나기도 한다. 광주극장은 아이들과 나를 이어주는 공간이다. 단순히 ‘오래된’ 공간을 넘어서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공간인 셈이다. ‘시네마 천국’과 ‘원스’ 등 음악영화들은 이곳이 갖는 아날로그적 감성과 어울려 좋아한다.”

무등실내악단 단원으로도 활동중인 김씨는 얼마전 극장에서 단원들과 시네마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7~8년전부터 본격적으로 영화관을 다

니기 시작한 회사원 이지현씨는 어머니, 형, 조카와 함께 영화 ‘이민자’를 보러 왔다. 간판 모델을 제안받았다. 이 씨는 광주극장 영화를 좋아하는 어머니와 함께 극장 데이트를 즐긴다.

이들에게 광주극장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박시은 양은 마지막까지 여운을 느낄 수 있도록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불을 끄지 않는 점을 들었다. 김윤아씨는 감독과 배우의 만남을 꼽았다.

“다른 멀티플렉스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홍보성 만남이 아닌, 마음으로 만날 수 있어서 좋다. 끝나고 나서 맥주 한잔 마실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고, 우리처럼 지방에 있는 이들에게는 선물같은 거다.”

박 교수는 “광주극장을 자주 찾는 이들은 공간에 익숙하고 같은 걸 공유하는 ‘동지’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씨네 토크 행사를 통해 많은 교류도 할 수 있고, 오래돼서 익숙한, 편한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나는 영화 시작을 알리는, 지금 들리는 저 종소리가 좋다. 저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속 감동들이 모두 떨어지는 느낌이다. 광주극장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독립운동가 같다. 권력과 자본에 지배받지 않는 영화들을 끊임없이 상영하는 결로면 더욱 그렇다. 난 경로우대라 5000원짜리 관객인데 작은 힘이라도 되면 좋겠다.”(최영무)

이번에 제작된 간판은 80주년 기념영화제가 열리는 오는 10월15일 관객들과 함께 영화관 외벽에 내걸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화담의 꿈’

김상례 첫 개인전

30일까지 무등갤러리

김상례 작가가 오는 30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화담의 꿈’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개인전을 연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약 40여 점의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오면서 골목길, 꽃, 벌레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해 느낀 점과 이야기를 화폭에 담았다. 특히 김 작가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민달래는 낮은 곳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애환을 형상화시켰고, 두마리씩 짝지어 다니는 무당벌레는 동행과 화합을 상징한다. 두꺼운 한지 위에 복잡한 채색 과정을 거친 ‘민달래사랑’, ‘둘이



김상례 작 ‘둘이서’

서’ 같은 작품은 반복되는 생명의 생생함과 소멸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김씨는 한국 미술대상전 특선, 광주·전남 미술대전 특선 등 각종 대회에서 입상했으며 전남여성작가회, 순천미술대전추천작가, 전국바다사생대전 추천작가 등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36-2520. /김용희기자 kimyh@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경력 논란

비대위 “일부 경력 위조 해임”

예술 감독 “사실 아니다” 반발

지난 3월 부임한 광주시립극단 김영옥 예술감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극단 일부 단원들로 구성된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선임의혹규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김 감독이 경력을 위조했다며 감독직에서 해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감독은 비대위가 주장하는 내용을 “사실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문화회관은 1차 공개 모집에서 11명의 지원자 가운데 ‘적격자 없음’ 의견이 나오자 특별 전형을 통해 김감독을 선임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여수시립극단 창단 예술감독’(2000~2006) 직함 여부다. 비대위측은 김 감독이 국악단 단무장 출신인데 전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는 예술감독으로 기재돼 추천 대상자 이력 사항에 대한 검증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관측은 조례상 심사가 진행될 당시에는 이력서를 받을 수 없어 인터넷 자료와 여수 시청에 문의 전화를 한 후 예술감독이라는 이력 사항을 자료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여수시청은 최근 김 감독은 ‘여수시립극단’ 직위는 단무장, 호칭은 예술감독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2001년 공연 팸플릿에는 김 감독의 명칭이 예술감독, 제작 총지휘 등으로 명시돼 있지만 노조측이 제시한 2005년 공연 자료에는 단무장으로 적혀 있다.

이에 대해 21일 기자회견을 가진 김감독은 “여수시립극단의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직위명이 바뀌면서 단무장으로 바뀐 것 뿐이었다”며 “여수시립극단을 창단하고 재임하는 동안 예술감독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김 감독이 이력 중 하나라고 밝힌 ‘전남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문화재 후보’라는 것 역시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관측은 전남도측에 확인 결과 김 감독이 심사를 받을 당시에는 있었던 제도였다고 밝혔다.

그밖에 비대위는 “판소리 ‘이순신가’ 카네기홀 초청 무대의 경우 대관 공연에, ‘발레 무대’에 불과한 데도 초청 공연에 왕장 무대인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감독은 “미국 원각사 초청을 받고 간 공연이라 당시 모든 절차를 미국 쪽에서 진행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한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대책위원회는 “특별전형 추천대상자에 대한 이력사항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감독을 선임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전형 관련 서류, 자문위원회 공개와 함께 이같은 사태를 자초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관측은 “경력 위조 등과 관련한 일부 단원들의 문제 제기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인 만큼 감독 능력은 3년간 공연과 단체 운영 등을 지켜보고 재신임을 통해 증명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 상 준 원장
전문의, 전 동산대학교수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KT ● 중일초교 ● 금남로

← 계림동 →

한화생명 ● 주심정 병원 ● 고려우치점

구.한미소방 ● 동부소방서

북경당 한의원